

보통사람들도 책을 쓰는 사회

김재은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필자가 창조적 인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물로 「天才, 그 창조성의 비밀」이란 것을 냈다. 어떤 사람이 창조적 인물이 되고 이른바 천재란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길래 놀라운 창조를 해낼 수 있었느냐를 연구한 것이다.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얻은 결론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두 가지만 거론해 보겠다. 유대인에게 천재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해명하게 되었다. 첫째는 그들의 선민의식이다. 이런 자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필하든 일급이 되어야겠다는 동기를 갖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학문 숭상의 정신이다. 이것은 동양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가 안정된 가정을 들 수 있다. 이상한 말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민족 중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유대민족이다. 그리고 교육방법이 철저하다는 점이다. 단일민족 중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은 것도 바로 위에 든 이유와 관련이 있다.

또다른 결론 한가지는 역사상 인류의 스승이 많이 탄생했던 때는, 유럽의 중세처럼 정치적 암흑시대가 아니라 고대회람이나 르네상스 시대나 중국의 춘추시대, 그리고 서양의 계몽주의 시대에 인물이 많이 태어난 것은,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때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즉 창조적 표현을 부추기는 문화·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졌을 때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점이다. 창조성을 부추겨주는 풍토여야 학문·예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사회·문화적 조건이 없으면 비지성적 문화로 머물게 되는데, 교조적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독과 동유럽의 사회과학자의 절망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지적 풍토를 만들어가려면 비단 대학이나 연구소의 소수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시민들, 즉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지적 풍토의 혁신과 지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일본연구가가 수십명에 불과하다. 그것은 전문직업인들(교수 연구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에는 한국연구그룹만도 수백개나 되고 한국연구인구만도 수만명에 이른다.

소련은 어떤가? 우리는 겨우 몇사람의 소련어학자나 역사연구가가 있을 뿐인데, 소련에는 한국전문가가 수백명이 넘는다. 그룹에는 한국의 고전문학을 연구·번역할 만큼 많은 수의 한국전문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련어 동시통역자도 제대로 길러놓지 않고 대소 수교를 재개했다. 우리나라의 평균독서량은 일본인의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도서출판경향을 보더라도 도서총출판량(중이소비기준으로)의 50%가 참고서류이다. 이래서야 참된 지적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일본만 하더라도 아마추어가 저술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 저술이란 게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들이 있다. 계중에는 학자들의 저술수준을 능가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적 수준, 즉 민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는 먹세가 썩다. 뷔페식당이 꽤 발달했다. 푸짐하다. 그런데 과식하는 편이다. 일본인이 장수하는 까닭에 소식과 생선 먹는 것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안먹고 버리는 것만도 일년에 1조원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책은 읽지 않는다. 머리가 텅텅 빈 깡통같다고나 할까? 요즘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 보라. 그 전체적 모습이 풍기는 인상은 말초감각만 발달하고 머리가 빈 아름다운 빈 깡통 같은 느낌을 갖게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해 들어가려면, 중이가 참고서 찍는데만 소비될 게 아니라 보통시민들이 쓴 책들을 찍어내는 데 쓰여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뉴스	2	도서유통체계 효율화 방안 논의·외
특집/총론	4	이제는 풀어 다시 묶어야 할 매듭 한국지성사 분수령 이론 진보성향의 사회과학적 인식들
특집/인터뷰	7	'해방 3년' 정치역정의 치밀한 이해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낸 서중석교수
특집/각론	8	철학/전환기 한국사회의 지성사적 논제 - 이봉재
	10	역사/근현대사·북한사에 집중적 관심 - 정태현
	12	사회/민중사회학에서 포스트마르크시즘까지 - 박형준
	14	정치/정치의발전과 정치학연구의 심화 - 고성국
	16	경제/발전단계론과 종속성 논쟁이 핵심 - 정원호
특집/리뷰	18	'운동'과 '실천'으로서의 학문과 출판 진보성향의 학술연구단체 및 간행물 리뷰
얼굴	19	창립 20주년 맞은 열화당 이기웅사장
서평	20	한홍수 외 「현대정치와 국가」- 백종국 김응중 「아날학과」- 이세희
	21	최대석 「산업디자인학」- 이순중 유리 로트만 「예술텍스트의 구조」- 김치수
	22	브라운 외 「지구환경보고서」- 송상용 심재형 「해양오염과 생태계」- 최중기
	23	차미래 「미술에세이」- 손철주 김원우 「아득한 나날」- 우찬제
출판화제	24	'교양'에 앞서 '실리' 선호하는 경향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로 통해본 독서경향
리포트	25	일상의 과학적 사고 위한 지름길 과학저술인협회 심포지움서 손영수씨 발표
교양논단	26	정치경제학의 새 지평 연 '조절이론' - 정명기
해외화제	28	美·日 경제지가 권하는 '여름의 책' - 이봉호
세계의 출판	30	미국정치의 핵심은 '출세주의'·외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정정환

편집자의 말

80년대 이래 진행돼온 진보성향의 사회과학적 인식들의 전개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는 패러다임의 거의 혁명적 전환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우리 지성사의 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번호 출판저널은 이같은 진보적 인식론들이 어떤 과정을 밟아 형성됐으며,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쟁점들을 제공했는지를 점검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인물도 특집에 맞춰, 한국현대사 부문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진보학계의 상징적 성과물로 이해되고 있는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의 저자 서중석교수를 내세웠다.